

“우리집 책은 외출을 싫어합니다”

만명의 친구를 단속하는 버릇

박상률 | 아동문학가 · 송의여대 겸임교수



일러스트레이션 | 최정규

햇살은 따스한데 바람이 몹시 불니다. 봄바람이죠. 지금이야 황사 때문에 봄바람이 달갑지 않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니다. 어린 시절 나는 봄바람 자락에 묻어 있는 냄새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봄바람 속엔 무엇보다도 만물을 깨우는 향내가 들어 있었습니니다. 어쩌면 긴긴 겨울잠을 잔 나무며 풀이며 동물들은 봄바람 속에 들어 있는 향기로운 내음을 맡으며 다시 살아났는지도 모르죠.

처녀, 총각들도 봄바람 내음을 맡으면 가만 있지 못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가슴이 봄바람을 쐬면 자신도 모르게 울렁울렁해졌죠. 그래서 앞집 순이, 뒷집 철이가 한 몸 돼 마을을 뜰 때는 엉락없이 봄바람이 몹시 분 다음날이었습니니다. 나 역시 어렸을 때 봄바람이 불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몸이 근질근질하고 뭘지 모를 조바심에 마음이 싱숭생숭했죠. 그런 어느날, 봄바람이 훑고 지나가는 신작로를 따라 읍으로 가는 고개를 넘었습니다. 내심 어찌자는 생각도 없었고, 그저 마을을 벗어나 아무데나 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시오리길을 걸어 읍에 도착한 뒤 나는 차부 옆 한 식당에서 새 나오는 음식 냄새에 취해 한참 서 있었습니니다. 금방 먹고 돌아서면 바로 배가 고프던 시절이었습니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식당 가까이에서 서점이 있었습니니다. 서점 유리창엔 붓글씨로 몇몇 책의 제목이 써어 있었습니니다. 나는 식당은 물론 서점에도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니다.

지금도 고향 읍내를 생각하면 그때의 식당과 서점 모습이 우선 떠오릅니니다. 음식점에서 새 나오던 냄새와 서점 유리창의 붓글씨, 육신의 밥과 정신의 밥!

봄바람에 취해 무작정 집을 나섰지만 내겐 그 식당과 서점을 읍내 풍경 첫머리에 두는 일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그 풍경 때문에 나는 평생동안 그때의 봄바람을 잊지 못하고 삽니니다. 그 봄바람 속에는 육신의 밥과 정신의 밥에 허기졌던 내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들어 있으니까요.

조선시대의 마지막 사람 같았던 할아버지와 시골학교의 교원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마루와 행랑채, 그리고 벽장엔 꽤 많은 책이 있었습니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수준의 아이가 읽을 만한 책은 별로 없었습니다. '백수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단편문학 전집》 정도가 그나마 내 수준에 맞는다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줄곧 그 책들을 끼고 살았습니니다.

본격적으로 책을 탐독하면서 이상한 버릇이 생겨났습니니다. 내가 읽고 싶은 책은 어떻게든 내 손으로 사는 것과 내 책은 절대로 남에게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니다. 그 버릇은 어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니다.

우리 형제가 육남매나 되는 데다 부모님이 거뒀어 하는 걸식구들이 많아 아버지 월급으로는 온 식구가 먹고 살기에도 벅찬 집안 환경이었습니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온갖 농삿일을 닦치는 대로 해서 장남인 내가 책을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주셨습니니다. 어머니는 눈칫밥은 살로 가지 않는 것처럼 책도

자기 것을 봐야 하는 줄 아셨던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문필 생활을 시작한 이래 원고를 쓰다 지치거나 막히면 나는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책장을 바라봅니다. 별다른 휴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책장 저 책장을 바라보며 책 등에 적힌 제목들을 훑다 보면 피로가 절로 풀립니다. 나는 책을 한번 읽고 꽃아 둔 뒤 두고 두고 책 제목을 보며 그 책의 내용을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그러면 내 머리 속에 온갖 이야기가 피어납니다. 그러니 내 책을 남에게 빌려 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 내가 어떤 책을 쳐다 보다가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지 몰라서입니다.

화장실만 빼고 집안의 벽이란 벽은 모두 천장에 닿도록 책을 쌓아 놓고 살다보니 집이 비좁고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책이 주는 즐거움에 비하면 이런 불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혹 집에 방문객이 오면 서가를 뒤지며 책을 빌려가고 싶어했습니다. 그럴 땐 참으로 난처했지요. 책을 빌려주기 싫어하는 내 마음도 마음이지만, 내가 안된다고 하기 전에 책이 먼저 얼굴을 찡그리며 나가기 싫다는 표정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리 끝에 서가 곳곳에 이런 문구를 써 붙였습니다.

‘우리집 책은 외출을 싫어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지인들은 노골적으로 불평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책 인심이 고약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나는 단호했습니다. 필요한 책이면 술 담배 먹지 말고 네 돈으로 사서 봐라! 우리 집 서가엔 한참 동안 그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자주 들락거리는 방문객들이 내 의도를 완전히 알고 난 뒤에야 떼어냈으니까요.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대학 시절 한 친구가 일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평소 그다지 친하게 지내던 사이도 아니었지만 우연히 내 자취방에 들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다짜고짜 책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책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돌려 줄 것을 청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책을 가져오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래 몇 달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게 됐죠. 그 때까지도 친구는 책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졸업식 뒷날 만사 제쳐 두고 친구 집을 찾아가 책을 찾아 왔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더 책 단속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책을 빌려주는 사람은 바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빌린 책을 돌려 주는 사람은 더 바보고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성철 스님 같은 분도 동료 스님들한테 빌린 책은 절대로 돌려주지 않았더군요. 수행력 높은 그런 분도 바보 소리는 듣기 싫었을까요?

이제 갓 사십을 넘긴 나이에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하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내 책들을 밖으로 내돌리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자료로서 효용가치가 높게 나름대로 계통을 갖춰 집에 들여놓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어느 책 하나 정들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눈을 감아도 내가 필요로 하는 책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압니다. 그 정도는 책에 대한 예의죠.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 나는 만 명의 친구를 곁에 두고 있는 셈입니다. 그 친구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는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가 아무리 늘어도 친구의 이름이나 앉은 자리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는 책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니까요.

어떤 때는 내가 책 욕심을 너무 내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불가의 말을 바꿔 적용하면 책에 집착함으로써 ‘책’ 너머의 세계를 놓치는지도 모릅니다. 또 문자에 중독돼 문자 너머의 지혜를 놓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책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만 해도 한 시대의 도인이 되기에 충분하니까요.

책 속에 세상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책에는 저마다 자기만의 독특한 세상이 있습니다. 나는 책마다 달리 가지고 있는 세상을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해 마침내 나만이 이를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집 친구들의 외출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廣告

智略

빠르고 보다 일찬 신간종합정보지인
『출판저널』이
출판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출판에 관한 광고를 저렴한 가격으로
게재해 드립니다.

출판저널

광고문의
전화:732-1433
전송:722-1174